

정읍 관광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모바일 전자 관광지도 구축

관광지·숙박·음식·교통 한눈에

네비 연계 길 안내 서비스도



정읍의 9경을 비롯해 문화재와 숙박시설 등 주제별 검색은 물론,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예매 사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 등) 검색창에 '정읍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라고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전자지도에 접속하면 아이콘으로 표현된 정읍의 주요 관광지과 주변 음식점, 숙박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트 연결도 가능하다.

GPS를 연동해 사용자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과 네비게이션 연계를 통한 길 안내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모바일 설정에 따라 해당 언어로 자동 구현되는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 시대에 소규모 여행 패턴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폰 하나로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정읍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전자지도를 구축하게 됐다"며 "스텝 투어 이벤트 등 관광 전자지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13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이 열렸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6대 영역별 20개 전략사업 추진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입지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13일 시청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시는 지난 6월 1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보호, 보건·사회서비스, 교육·가정생활환

경 등 6대 영역별 20개 전략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올해 1497억원(전체 예산대비 11.3%) 예산을 투입해 정책토론회와 아동학대 대응,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테마공원 놀이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아동과 여성 친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저출산시대에 아동은 지역의 희망이자 보물"이라며 "지역의 정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285억원 투입 춘향골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축구장·테니스장·수영장 등

내년 5월까지 모든 시설 완공



남원시가 축구장과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중인 춘향골체육공원 일원.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는 춘향골체육공원 일원에 28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번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민선 7기 이환 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22년 5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은 축구장(1면), 족구장(3면), 톨러로드 경기장(길이=400m), 테니스장(4면), 실내수영장(6레인, 길이=25m), 실내게이트볼장(4면), 실내배드민턴장(8면), 다목적체육관(1동) 등이다.

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현 춘향골체육공원의 인접토지 7만3652㎡를 매입하고, 현재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테니스장은 2979㎡ 부지에 실외코트 4개면 조성을 완료했으며, 톨러로드경기장은 9000㎡ 부지에 트랙 폭 8m, 길이 400m로 6월에 완공했다.

시는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남원시민의 건강한 체육증진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

육인 양성과 훈련을 통해 인구 유입이나 남원시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완공이 되는 2022년 이후에는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는

물론, 체육인의 육성과 훈련의 전진기지로 활용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시 경암동,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국비 50억 등 93억여원 들어

구암초등학교에 생활SOC 조성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군산시 경암동이 선정돼 도심활성화 복합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재탄생 된다.

군산시는 협소한 경암동 현정사부지와 인접한 구암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복합형 생활SOC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총 사업비 93억 4000만원(국비 50억원, 도비 8억3000만원, 시비 25억1000만원, 자체시비 10억)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학교시설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기준 검토와 수송·미장 택지개발로 도시 기능이 재편되고, 학령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도심 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은 것에 착안했다.

유휴공간을 연계해 방과 후 돌봄시설 등 학생교육 기능과 더불어 지역 내 교육·문화·소통의 중심

점이 되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유출, 학령인구 감소, 주거지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암동 지역의 생활인프라도 개선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활성화를 끌어내는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되도록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군 '단경왕후'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순창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두루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조선시대 비련의 왕비로 알려진 '7일의 왕비' 단경왕후를 기리는 역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목표로 문화재정 및 순창군이 주최하고 문화재아울리치연구소가 주관해 2년 연속 생생문화재사업에 선정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조선 11대 왕 중종의 비인 단경왕후는 반정모의에 반대했던 아버지가 살해되자 역적의 딸로 몰려 왕비가 된지 7일만에 본가로 쫓겨난 비련의 왕비

(영조 15년인 1739년 복위)다.

오는 10월까지 순창객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중종반정 후 7일 동안만 국모의 자리에 머물렀던 단경왕후 신씨를 기리며, 왕실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왕비를 선별하는 간택부터 왕실헌례, 왕실태교 등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실학자로 지리학과 어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신경준 선생의 고지도를 따라 순창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이 프로그램 역시 오는 10월까지 열리며 장소는 구립작은도서관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9@

고창군 하전리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장

고창군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심원면 하전리 국도22호선 인근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직거래 장터는 농업회사법인 명품고창(대표 박수영)에서 운영한다.

지역농가가 재배한 복분자, 블루베리, 수박, 멜론, 땅콩, 고구마, 소금 등 30여개의 다양한 고창 농수특산물을 40여 농가가 참여해 직접 상품을 포장·진열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11월까지 상설 운영한다.

직거래장터는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

는 '2021년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113억원(국비 4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 11개 사업중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우삼 고창군 농어촌식품과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